

2017 경기도 합격수기

저는 학부 교직 이수를 했고, 공부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이구요 시험은 총 두 번 봤어요.
첫 해에는 대학교 졸업 후 3개월 정도 위상미술 이론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미술사
미술 이론에 기초가 많이 없어서.. 공부 시작하던 그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해 2월부터 다시 제대로 준비를 시작 할 때에도,
유업료가 사람 이름인지 묘법인지 구분하지 못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기에.. (ㅎㅎ)
혹시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시는 초수생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문제 풀이 복습

: 저는 다른 것보다 문제풀이 복습을 조금 꼼꼼히 해서 덕을 많이 보았어요.

특히 서술형이 많이 늘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기입에서 5점이 나가고 실수도 많이 했었던거데요.
그럼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서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평소에 첨삭을 통해서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서, 논술에서 확실하게 맞도록 트레이닝 해주신
위상, 장지연 선생님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복습 방법은 항상 비슷한 방법으로 했는데요,

⇒ 일단, 첨삭을 받은 경우에는 0점, 1점 받은 문제만 오답노트 하듯이 복습 하는 게 아니라
4점 만점에 3.7점 받은 서술형 문제도 어디에서 0.3이 깎였는지 계속해서 빠진 키워드를
찾고, 다른 선생님들 첨삭지랑 비교해보면서 만점자리 답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4점짜리 답안으로 일주일 동안 복습+암기를 하고,
다음 주 수업 전에 친한 선생님들과 1시간 정도 일찍 학원에 와서 그 전주 문제를 백지쓰기
하는 식으로 4점짜리 답을 다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Ex. 2주차 수업 때에는 7시 30까지 도착해서 한 시간 동안 1주차 문제 백지쓰기)
서로 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습 해 와서 서로의 백지를 채점 해 주면서
하나라도 빠진 키워드가 있으면 서로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답을 쓰는 체계가 생겼고,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점수를
받도록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복습을 하면서 자꾸
크게 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 모르는 문제를 푸는 요령도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9월 모의고사 논술 문제에 쉬포르쉬르프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 도판이 쉬포르 쉬르파스인지 전혀 몰랐고, 심지어 쉬포르 쉬르파스가 뭔지 몰랐었던거데요.
그래서 말이 되는(?) 소설을 써보자. 하면서 5월-8월 풀었던 문제 중에 비슷한 도판이랑,
그리고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 '추상표현주의를 반대하고'-> 에 해당되는 비슷한 문제를 떠올려서
거기에 있던 키워드를 버무려서 답안을 써 내려 갔어요. 어찌 보면 짝은 건데 ㅎㅎ 그 시험에서 등
수가 10등 안에 들었던거구요. 그래서 아,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풀었던 문제
들 아는 내용을 응용해서 어느 정도 써보면 되겠다! 하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나 위상-장지연 선생님 문제에서는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오리진’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도, 도판을 보고 [몬드리안-칸딘스키]비슷하네 주어만 생략하고 쓰면 키워드는 같은 문제들이요! 점점 크게 보는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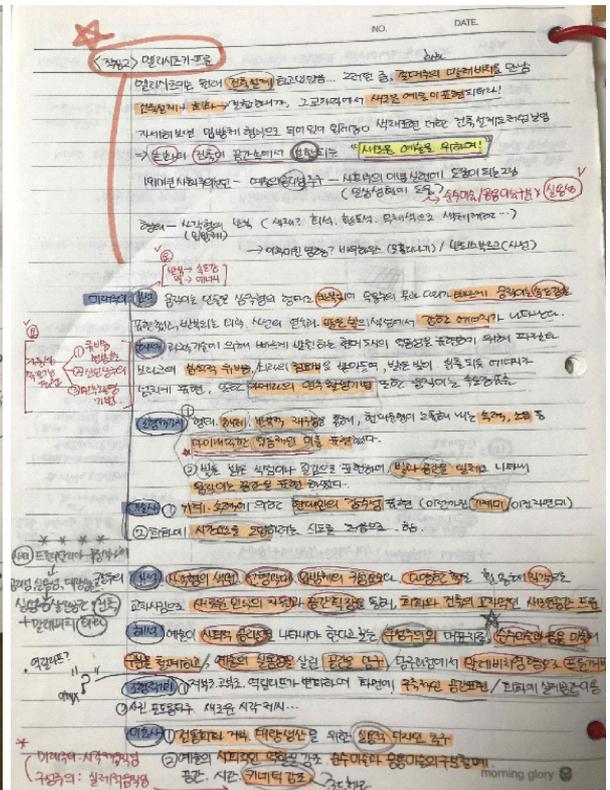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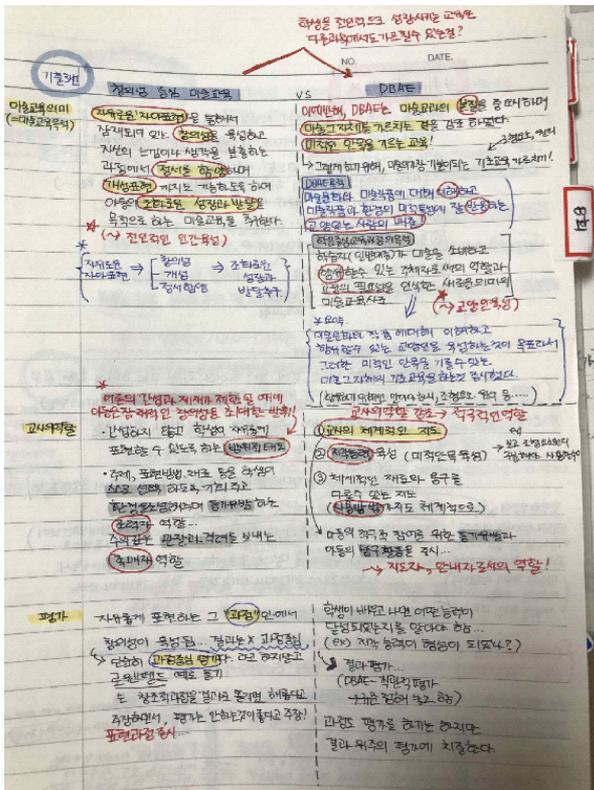
나중에는 디자인운동이 나오면 앞부분에는 ‘~ 때문에’ 부분만 다르고, ‘대중화에 실패하였다.’

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 대부분의 문제는 포스트모던-모던 비교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5, 6월 복습]

: 5,6 월에는 답안 쓰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서 집에 오면 답안지를 그대로 손으로 배껴쓰고,

장지연 선생님 하는 말씀을 녹음해서 그냥 손으로 다 받아 적었어요. +키워드에 동그라미+ 암기



그 다음 주 아침시간에 복습하는 백지시트는

기출3) 창의성중심 미술교육, DBAE에서 미술교육의 의미, 교사의 역할, 평가를 비교 서술하시오.

모든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와서 그대로 써보았어요. 시간이 없을 때에는 키워드 위주로.

[7월~10월 모의고사 복습]

: 이 때부터는 점점 문제 수가 너무 많아져서 복습을 다 손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틀렸던 문제나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등만 따라서 써 보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오답 정리를 했었어요. 저는 컴퓨터로 워드에 작성하면서 암기하면 동시에 입으로 말하면, 잘 외워지는 스타일 이었는데 컴퓨터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p>그리스 불레티코 원문 반문 기다라 열항 => 사실적인 묘사, 신화인의 일문 (사상적) 비상적인 비유, 조화</p> <p>-> 신이나 열광 모습 통한 기다라, 마우라 등 다 열항 앞에 결구된 기다라가 이 문체에서 X</p> <p>기다라</p> <p>1) 할비로프 사살상 2) 이상적 비례나 쿠산 왕조 시대에 한층어진 기다라 불상은 불상인듯어도 불어하고 부활을 기대한다. 유혹미, 오욕반조, 가톨릭미술을 (신성인의 모습) 하고 있다. 또한 미소를 앞 어깨를 모두 없는 불상에 불결치는 듯 조물</p> <p>순장 석굴</p> <p>순장 기원년복조 시기에 제작 해주는 기대하고 이쪽구체나 뚜렷 시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p> <p>색감상 (화강암)</p> <p>신앙의 모습 표현이 있는 사실적인 모습과 이상화된 비례에서 기다라 불상의 영향력 받음</p>	<p>형식</p> <p>1. 겹죽은 보그 말해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별칭이 기본 -원진 남북서: 사육의 6법 -> 재현은 나타 내야 장인됨 -달나라 등연: 괴재물(신) -> 풍자: 지우기 모양을 띠고 문제 3명 -달나라 정인형 (서해 울림) -> 달나라 소년부 사육 울림 등법 -달나라 주결형 (신화) -> 송나라 황후의 4극으로 발전</p>	<p>인형</p> <p>마체에 대한 기능 우주의 승구과 기초적인 효과를 두면, 불상과 바를 수 있다는 고대 유희를 통해 상조작용으로 기념일이나 신도 수도 반대로 지내신 (사아비 세계) 속이 서아 머물러 오직의 (제세적) 경향 보이기도 한다.</p>
<p>11. 상징성</p> <p>활판(속 프토도)</p> <p>포도 잎 포도 냉골</p> <p>포도: 자존심 상징(나선)</p> <p>냉골: 권위, 질, 권력, 미어</p> <p>자신을 사기는 마음으로</p> <p>자존의 변성론 의미한다.</p> <p>왕인들 그림은 순안이 그림이지만 서로, 열개 상징하는 것은 "사육의 6법"이고 왕인들(대주)을 주변 승위에 그려서 아래에 그림 -> X표지, 반 기념일에 보위한 구도</p> <p>11-2. 표현 양식에 따른 차이</p>	<p>형식</p> <p>1. 겹죽은 보그 말해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별칭이 기본 -원진 남북서: 사육의 6법 -> 재현은 나타 내야 장인됨 -달나라 등연: 괴재물(신) -> 풍자: 지우기 모양을 띠고 문제 3명 -달나라 정인형 (서해 울림) -> 달나라 소년부 사육 울림 등법 -달나라 주결형 (신화) -> 송나라 황후의 4극으로 발전</p>	<p>인형</p> <p>마체에 대한 기능 우주의 승구과 기초적인 효과를 두면, 불상과 바를 수 있다는 고대 유희를 통해 상조작용으로 기념일이나 신도 수도 반대로 지내신 (사아비 세계) 속이 서아 머물러 오직의 (제세적) 경향 보이기도 한다.</p>
<p>12. "다지일 아도, 넷 아브, 인디테타로" 작품 조소와 비교했을 때 도미에는 사실주의 대표 작가로 페라디: 기존의 예술작품으로 페라디 한 것은 뒤상 상조하는 인물들 페라디한 최초의 사상은 도미에 -> 당시 국왕을 우상화시켜 표현해서 당시 사회를 비웃음</p> <p>타나일 로진(나무 거울)</p> <p>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상형에 따라 조진 대연의 작은 조각의 다 디르크 미켈만 (센사) 열개 인물 나무 조각에 미세한 센사는 안에 나타나는 이미지, 식별하고 매지자 왕은 절후자가 항상 찾아내 모자이크를 되어 있는 자신의 얼굴 찾아 남다-> 상호 작용성 가지고 있음</p>	<p>모티브</p> <p>왕정적인 사정중에서 구체적인 모티브를 활용 입체적인 조형양식(조각) 형태(상형) 재현의 목적에 영향을 받기서 대상물(인물) 면으로 남정형에 구성한 형태 해석의 간색과 해석 등의 (상형) 결합, 나타낸다.</p> <p>조형 양식</p> <p>(가) 1960년대 이전: 전통회화, 조각, 입체적 특장 완성지에 벽, 차례으로 간략한 단조로운 형태나 연을 만들어서 이상을 사주적인 신적 비례로 표현 (나) 1960년대 이후: 조각, 조각 -> 사실주의, 페라디 등 수많은 작품의 인간성, 사교, 동성, 남녀 등 나인형 스토리, 정제되는 추상적이나 세부는 인물, 풍경, 정물 등 구상적인 표현 다양한 기법 표현- 관화로 에칭, 목판, 석판 등의 기법을 혼합하여 정물, 모티프와 풍경 모티프, 인물 모티프가 결합하여 반 추상화의 사정적 분위가 표현/ 70년대: 원전추상</p>	<p>인형</p> <p>마체에 대한 기능 우주의 승구과 기초적인 효과를 두면, 불상과 바를 수 있다는 고대 유희를 통해 상조작용으로 기념일이나 신도 수도 반대로 지내신 (사아비 세계) 속이 서아 머물러 오직의 (제세적) 경향 보이기도 한다.</p>

컴퓨터로 복습하면서 좋았던 것은
문제 중에 비교 문제가 많았는데
표로 정리하면 암기하기에 훨씬 쉬웠
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양하게
묻는 내용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 그걸 인쇄해서 구두로 암기했어요.

2. 대면첨삭

: 대면첨삭은 아까운 한 번의 기회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는데 꺄꺄
정말 정말 강추! 추천합니다~
일단 굉장히 창피하고.. 저는 조금 혼나고 나면(?) 공부가 더 잘되는 성격이라 대면첨삭 하고
나면 능력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혼나서 ㅋㅋㅋ)

뿐만 아니라 키워드가 다 있어도 어떤 식으로 쓰면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 되는지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글을 어떤 식으로 써내려갔는지 등등 알 수
있었고 장지연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더 공부해야 할지 이야기 해 주시거든요 ㅎㅎ
그래서 저는 대면 첨삭을 받고 나면 다음 공부방향이 조금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3. 공부 시간

: 공부 하시는 분 들 중에 어깨나 목, 허리 안 좋으신 분 들 많이 계시죠! 저는 어깨, 목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하루에 8 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고 ππ 9시간 넘어가면 머리, 귀, 눈까지 아플 정도로 좀 심각 했어요.

이게 일 년 내내 스트레스였는데...

이런 저만의 약점을 보완 하려고 아침, 저녁에는 전화 스터디도 많이 이용했었고,

(EX. 아침 15분 전화-교육학/ 저녁 30분 전화-구두로 문제풀이 복습)

독서실에 갈 땐 무조건 핸드폰, 아이패드 등 집에 두고 가서, 앉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 했어요.

그래서 순 공부 시간이랑 하루 전체 공부 시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육아나 여러 이유로 공부 시간 확보가 어려우신 쌤들 많이 계실텐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스트레스는 건강, 공부에 다 안 좋아요 흑흑)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랑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 하시면 그만큼 집중력이랑 효율이 높아져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어있는 시간들은 전화 스터디도 강추 합니다 ㅎㅎ

4. 마지막으로

: 저는 9월 첫째 주 모의고사 까지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어요.

7,8월 모의고사에서는 기입형 10점 이상 한 번도 못 받았었고.. 그런데 9월 둘째 주 부터 60점대 부근이 나오더니 10등 안에도 들기 시작했고.. 그 때 부터는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조금 일찍 포텐이(?) 터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더 늦게 어찌면 11월에 깨달음이 아! 하고 오시는 분도 분명 많이 계실 거 예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낯 뜨거운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스터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 1차, 2차 모두 너무 좋은 스터디 원을 만났었고, 저희는 스터디에서 ‘서로 돕고 집단 보상을 합격으로 받을 거야!’ 하면서 협동학습 하는 식으로 시험을 준비 했었어요.

모두 같은 지역인 경기도에 응시했지만 서로 아낌없이 도와주고, 칭찬해 주면서 서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일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와 문제로 최종합격 까지 이끌어 주신 위상, 장지연 선생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